

안세영, 올림픽 후 첫 공식 대회 출전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내일 전국체전 단체전 16강 출격

김우진·임시현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40명 참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폭탄 발언을 한 배드민턴 강관 안세영(삼성생명)이 올림픽 이후 첫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시작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종합운동장 등 75개 경기장에서 벌어진다. 47개 정식 종목, 2개 시범 종목 경기가 열린다.

선수 2만여명, 임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스포츠 스타 40명 중 40명이 참가한다.

이 중 배드민턴과 하키 등은 사전

경기로 대회 개막 전에 치러진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9일 경남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 일반부 단체전 16강전에 부산 대표로 나선다.

부산의 단체전 16강전 상대는 인천 대표인 인천국제공항이다.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단식 금메달 획득 직후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논란을 일으켰다. 부상 관리, 대표팀 훈련과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드러냈다.

8~9월 일본오픈, 코리아오픈에 모

두 불참한 안세영에게 전국체전은 올림픽 이후 첫 공식 대회다.

사전경기로 진행된 태권도에서는 파리 올림픽 여자 67kg 초과급에서 동메달을 딴 이다빈(서울시청)이 여자 일반부 73kg급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 가장 먼저 체전 일정을 소화한 태권도 김우진(울산광역시체육회)은 7일 벌어진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양궁 남녀 3관왕에 등극한 김우진(창주시청)과 임시현(임실군청)은 12일부터 체전에 나서고, 펜싱 남자 사브르 2관왕 오상욱은 개막일인 11일 개인전 첫 경기를 치른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스타로 떠오른 사격의 김예지는 13일부터 일정에 들어간다.

/뉴스



나란히 앉은 황선우-김우민 황선우(오른쪽)와 김우민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포상식 겸 2024 AQUA 경영 월드컵 2차 대회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

KIA, 연습경기 팬들에게 무료 개방

9일 상무전·14일 롯데전·18일 자체연습경기 개방

연습경기 관중 입장 & 예매 안내			
10/9(수) 14시	VS 상무 피닉스	10/8(화) 11시 예매	
10/14(일) 18시	VS 롯데 자이언츠	10/13(일) 11시 예매	
10/18(금) 18시	자체 연습경기	10/17(목) 11시 예매	

예매처: 티켓링크 "KIA 홈경기" 및 APP에서 보기
 입장 요금: 무료 (매우수료 1000원 별도)
 예매 가능 구역: 챔피언스, 중앙대야구장, 피아제야구장, 서포터즈석, 1,3부 일반석(K9, K8, K5) * K10은 관람 시키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우리 팀의 응원 "전망"과 함께 응원곡을 부르세요!
 경기 2시간 전 3층 GATE 오픈
 팀소속이 운영 "KIA"와 "KIA"로 운영합니다.
 구장 내 사용 및 기타 판매 시설 부분 운영
 응원단 부분 운영(응원단장 외)

가이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상무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14일 오후 6시 롯데 자이언츠전, 18일 오후 6시 자체 연습경기 등 총 3경기를 팬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좌석은 경기 개시 하루 전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며, 티켓은 예매 수수료 1000원 별도를 제외하고는 무료다. 현장 판매는 운영하지 않으며, 예매한 티켓은 무인발권기에서 발권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스마트티켓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를 대비하기 위한 연습경기 팬들을 초대한다. KIA는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

외야석과 에코다이내믹스 가족석, 스카이프리뷰석, 4층 파티석, 스카이박스 등 개방하지 않는다.

전남 선수단, 제105회 전국체전 결단식

양궁 남수현·복싱 임애지 등 49종목 1748명 참가



전남도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7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윤병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체육 관계자,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체육진흥성금을 지원하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남 선수단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49개 종목 1748명(선수 1130명·임원 618명)이 참가한다.

파리올림픽의 영웅 남수현(양궁·순천시청), 최세빈(펜싱·전남도청), 정나은(배드민턴·화순군청), 임애지(복싱·화순군청) 등이 참가해 당시 감동을 다시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포환던지기 정일우(여수시청)가 10연패, 우수 윤웅진(전남도청)·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이 각각 6연패에 도전한다.

김 호 기자

2024 MBN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

전국 마라토너 1만명 영산강 가을 정취 만끽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통 통제

2024. 10. 13. (일) 09:00
 (코스) 나주종합스포츠파크
 2024 나주영산강축제
 2024 나주영산강축제
 2024 나주영산강축제

'2024 MBN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가 10월 13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및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개최된다.

MBN, 매일경제, 나주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나주시, 나주시의회, 전라남도체육회, 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5km, 10km, 하프, 풀코스,

단체전 팀대항까지 총 다섯 종목으로 구성됐다.

대회코스는 5km는 나주종합스포츠파크를 출발하여 영산강변을 따라 나주대교 인근을 향하며, 10K, 하프, 풀코스는 똑같이 나주종합스포츠파크를 출발해 영산강변을 따라 뛰게 된다. 풀코스는 동강교 부근에서 반환한다.

지난해 첫 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는 대회 운영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전 마라톤 국가대표 이봉주 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해 눈길을 끈다. 특히 관내 숙박·외식업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찌감치 대회 준비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숙박비와 식비를 각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전국에서 모이는 수많은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나주배, 나주쌀, 나주시랑상품권 등을 기념품으로 받게 되며 경기 전 개회식에 주점을 통해 칼도바15g, 이동식 TV,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나주시민행 기자

전국 최대 규모 2000평 스포츠센터 상무지구

파라드시티

QED골프

Fitness

- ☑️ 광주유일 실내 100M트랙
- ☑️ AI 디렉트

1:1PT

- ☑️ 개인PT룸
- ☑️ 스트레칭존

Tennis

- ☑️ 스크린 연습장
- ☑️ 실내 정식 코트
- ☑️ 실외 코트 가능

Golf

- ☑️ 1000평 규모
- ☑️ 31타석

평일 06시~24시 / 주말 08시~22시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음 상가 2,3층 파라드시티(광주CGV 건너편)
 문의 062 374 0088

10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 2개 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